

치 사

한국불교기자협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불법홍포와 교단 외호를 위해 지난 20년간 부단히 정진해 온 기자협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현대 한국불교에서 불교언론은 당당하게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홍포하기 위해 묵묵히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누구보다 앞장서 불법(佛法)을 지켜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자와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불교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총무원장에 당선된 직후 “한모금의 물을 마실 때에도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음수사원(飲水思源)’을 소감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초심(初心)을 잃지 않고 오직正道(正道)만 걸으며 종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또 종정예하와 원로 대덕스님들의 뜻을 받들고 사부대중의 의지를 모아 종단을 여법하게 운영하겠다는 발원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소통’이 화두입니다. 막혀있는 대화의 길을 뚫어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종단은 ‘소통과 화합, 불교중흥’을 화두로 삼아 시대와 소통하고 국민화합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 설 것입니다. 아울러 소외된 이웃들과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한국불교기자협회 회원사의 70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론직필(正論直筆)의 기자 정신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상호 신뢰할 수 있고 한국불교가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종단 역시 보다 안정된 언론환경 조성과 불교언론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과 협

20091207 한국불교기자협회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불교기자협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나날이 향상되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3(2009)년 12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